

〈아르헨티나篇〉

아르헨티나 農業技術研究所

— 農畜產物研究가 主對象 —

아르헨티나 農業技術研究所는 食品, 酪農製品, 製紙用木材, 綿, 果實, 蔬菜의 各分野가 主要研究對象이다. 國立產業技術研究所와는 食品產業育成을 위하여 共同研究協定을 맺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世界的인 食肉生産國답게 政策的으로 食肉生産業研究에 置重하고 있다. 食肉保全技術과 半加工肉食品에 관한 技術開發에도 注力하고 있으며 獨自的인 規格加工, 良質의 維持도 重要課題로 되어 있다.

海外市場에서도 아르헨티나가 主眼하고 있는 肉質과 食品의 需要가 增大하고 있어 同研究所의 目標도 國際市場에 供給하는 食肉과 加工品의 價格 및 品質에 特別留意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食肉品, 冷凍加工食肉製品의 生肉과 큰 差異가 없는 맛의 維持에 연구의 標的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연구의 一環으로서 소스등으로 맛을 調整하는 加工食品의 製造技術이 개발되었다. 이 加工식품은 大量消費處인 軍需, 學校, 工場의 수요에 알맞게 연구개발되었으며 EC諸國에서는 이미 이 加工식품의 原料를 輸入하여 그 地域에 맞게끔 加工한 후 소비처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소는 海外市場開拓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美國을 비롯하여 캐나다, 스웨덴, 日本등 多需要市場에의 進出을 目標로 하고 있다.

酪農製品分野에서는 치즈의 製造法에 관한 研究도 精力的으로 추진중이며 이미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 이겨낼 수 있는 高水準의 치즈 제조법실험도 하고 있다. 산업기술연구소와의 協力關係도 切實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품질과 제조법 向上에 重點을 두고 있다.

製紙產業의 연구로는 製紙用木材의 品種改良에 着手했으며 현재 아르헨티나國內에 生育되고 있는 버들등 다른 5種의 목재에 대하여 품종개량연구가 進行되고 있다.

연구는 人工的인 方法에 의한 품종개량과 自然프로세스를 이용하는 兩面研究를 併行하고 있다.

또한 품종개량의 대상으로 유카리樹를 指定하였으므로 이같은 연구는 木두가 製紙用材에 適合한 품종의 개발을 目的으로 한 것이다.

綿關係의 연구는 棉花의 育成法과 紡績技術이 主題가 되어 實驗農場에서 各種 면화육성에 관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적기술의 研究분야에서는 國內의 관계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울과 國產綿纖維의 加工技術의 개발프로젝트에 골몰하고 있다.

과실과 소재에 관한 研究도 계속하고 있는데 토마토의 移植과 收穫의 機械化 따위의 研究를 들수 있으며 현재까지 아르헨티나에서의 토마토栽培는 손에 의한 作業이 있다. 그래서 大量生産을 위하여 기계화를 연구하게 된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여러 種類의 作物에 대한 모든 特質의 研究도 하고 있으며, 특히 작물의 規格을 規制함으로써 輸出市場의 擴大도 企圖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식육, 낙농제품, 農產物 등으로서 外貨稼得의 大宗을 이루고 있으며, 農產品의 附加價値를 높이기 위한 새기술의 향상개발에 國力을 傾注하고 있는 실정이다. 農業과 酪農業이 基本經濟構造를 이루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實情下에서는 농업을 魅力있는 產業으로 육성발전시키려는 國策은 當然하다 하겠다.